

오키나와 전투와 '1피트운동'의 기억의 정치

주은우

중앙대 사회학과 부교수

I. 오키나와와 '기억을 둘러싼 전쟁'

2009년 9월 일본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연립정권이 출범하여 1955년부터 자민당이 주도해 온 정국 구도에 종지부를 찍었다.¹⁾ '55년 체제' 수립 이후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곧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도했다. 오키나와 본섬 기노완(宜野灣)시 중앙에 위치한 미군의 후텐마비행장은 애초의 반환 약속을 깬 양국정부에 의해 나고(名護)시 헤노코(辺野古) 지역으로의 이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를 수용해 기지의 현외이설을 추진하려던 하토야마의 시도는 관료들과 기성 정계의 비협조와 무엇보다 미국의 강경 대응에 맞닥뜨려 실패했고, 1996년부터 격렬한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후텐마기지는 결국 2010년 6월 2일 총리가 사임하고 하토야마 내각이 260일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B00270).

1) 그에 앞서 1993년 일본신당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의 단명했던 8개 야당 연립정권 출범으로 38년에 걸친 자민당의 1당 지배가 끝난 바 있긴 했다.

의 단명내각으로 끝나는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다(진필수 2011).

이 일은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한 면적에 재일 미군기지(전용시설)의 74.6%가 집중되어 있는 ‘기지의 섬’ 오키나와의 상황에 대한 약간의 개선조차도 아직 얼마나 난망한 일인지 잘 보여준다. 두 번에 걸쳐 오키나와현지사(1991~1998)를 역임한 바 있는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가 역설하듯 ‘오키나와 문제’는 곧 ‘기지 문제’이며,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오키나와의 정체성과 자율성, 문화적 독자성, 역사적 기억 등 모든 쟁점들은 이와 연결된다(Yonetani 2003, 245). 이 전후 오키나와 문제의 기원은 무엇보다 ‘오키나와전투(沖繩戰)’에 있다(정영신 2008, 186).²⁾ 그리고 이 “오키나와전투는 오키나와 역사에서 가장 외상적인(trumatic) 사건이며 현대 오키나와에서 가장 논쟁적인 기억(과 추도)의 자리이다”(Hein and Selden 2003, 12).

그런 만큼 오키나와전투에 대한 기억은 늘 치열한 투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2007년 3월 30일 문부과학성의 전년도 교과서검정결과 공표에서는 5개 출판사 7종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오키나와전투 당시 ‘집단지결’에 대한 기술에서 일본군에 의한 명령·강제·유도 등의 표현을 삭제·수정시킨 것이 밝혀졌고, 다음 날 신문들은 교과서검정에서 군의 ‘집단지결’ 관여가 부정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검정결과는 광범위한 비판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오키나와의 항의는, 현 내 63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6·9 오키나와전의 역사왜곡을 불허하는 오키나와현민대회(6·9沖繩戦の歴史歪曲を許さない! 沖縄県民大会)’에 3,500명이 집결했고, 9월 29일 기노완 해변공원(宜野湾海浜公園)에서 열린 ‘교과서검정의견 철회를 요구하는 현민대회(教科書檢

2) 오키나와의 기지화·요새화는 일본군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으며, 오키나와전투 당시 미군은 상륙 당일부터 확보한 비행장을 정비해 활용하는 등 기지건설과 전투를 병행했다. 오키나와전투를 일본과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전(沖繩戰)’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하위개념으로서 ‘오키나와전투’와 문맥에 따라 병용한다. 영어로는 ‘the Battle of Okinawa’이다.

定意見撤回を求める県民大会)에는 주최 측 집계 11만 명이 운집하여, 가히 '섬 전체 운동(島ぐるみ運動)'의 양상을 띠 정도로 거셌다(大城將保 2007, 15-22).³⁾

교과서검정결과에 대한 오키나와의 항의는 오키나와 자신의 기억에 왜곡과 망각이 강요되는 데 대한 저항이며, 국민국가 일본의 공식역사 구성에 오키나와가 부당한 방식으로 동원되는 데 대한 거부이다. 19세기 후반 류큐(琉球) 왕국이 오키나와현이 되어 일본에 공식적으로 편입되고 난 뒤에도 오키나와는 '내부 식민주의'(Hook and Siddle 2003, 12)에 의한 차별의 대상이었고, 한술 더 떠 태평양전쟁 막바지에는 일본 영토에서 벌어진 유일한 지상전의 무대가 되어 본토 방위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또 전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중심-위성 관계에 의해 '이중식민지화'(McCormack 2003, 93)되어 '기지의 섬'으로서 미일안보동맹체제와 일본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희생양 역할을 강요받아왔다. 이렇게 희생과 그에 대한 저항으로 점철된 고단한 역사와 체험으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오키나와의 기억'은 '일본의 역사'와 마찰음을 일으키고 그 내부에서 파열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上村忠男 編 2002).

영상문화 역시 그 한 영역이다. 예컨대 2003년 야마가타(山形)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는 「류큐전영열전(琉球電景列伝)」이라는 오키나와특집이 기획되어 극영화, 다큐멘터리, 뉴스영화, TV드라마와 보도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80여 편의 영상물이 상영되었는데(仲里 効 外 編 2003; 浅川志保·山本アツ 編 2003, 95-124), 코디네이터 역을 담당했던 오키나와의 비평가이자 사진작가, 시나리오 작가인 나카자토 이사오(仲里 効)는 이 특집 프로그램의 도쿄 상영 심포지엄에서 “기억을 둘러싼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류큐전영

3) 후자의 현민대회는 DVD

《教科書検定意見撤回を求める県民大会 - 資料編》(「9・29県民大会」ビデオ製作委員会, 2007) 참고. '섬 전체 운동'은 1950년대의 '섬 전체 투쟁(島ぐるみ闘争)'(아라사키 1998, 82-84) 이래의 오키나와의 저항 전통을 잇는 것이기도 하다.

열전》을 통해 “오키나와전(沖繩戰)의 보복전쟁”을 준비하고 ‘일본복귀운동’을 포함한 오키나와 전후를 “재심”할 것이라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仲里 効外 2004, 5; 比屋根薫 2004, 84; 我部 聖 2005, 11).

오키나와에서 전개되었던 ‘1피트운동(1フィート運動)’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운동은 오키나와전투 당시 미군이 촬영한 필름들을 모금을 통해 각자 1피트씩 사들임으로써 오키나와전투의 영상기록들을 오키나와 주민들 자신의 손으로 되찾고 오키나와 주민의 시점에서 재구성하여, 이 영상기록들을 통해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오키나와전투의 실상을 전하고 세계를 향해 평화를 희구하고자 한 풀뿌리 평화운동이자 영상운동이다(주은우 2007, 299; 아라사키 2008, 156). 이 운동을 수행한 ‘1피트운동모임’은 1983년 12월 8일 결성되어 기록필름 구입과 수집, 기록영화 제작과 상영, 전쟁 체험자 강사 파견 및 평화심포지엄, 평화운동 참여 등 약 30년간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다 2013년 3월 15일 해산했다.⁴⁾

오키나와전투는 전전의 오키나와가 겪었던 ‘내부 식민주의’의 비극적 귀결점이자 전후의 오키나와가 종속된 ‘이중식민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와 ‘오키나와의 기억’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정점을 이룬다. 바로 이런 오키나와전투를, 오키나와인 자신들이, 오키나와의 시점에서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 1피트운동은 ‘기억의 정치’의 정수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주은우 2007, 315). 그것은 바로 오키나와전투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전쟁’의 일환이자 ‘오키나와전의 보복전쟁’ 자체이다.

4) 1피트운동의 홈페이지에 해산선언문이 게시되어 있다 (<http://www.geocities.jp/okinawa1feet/>).

Ⅱ. 오키나와전투와 1피트운동

1. '철의 폭풍'

오키나와전투는 일본 역사를 통털어 일본의 영토에서 벌어진 유일한 지상 전이다. 또한 오키나와전투는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전투이자 가장 격렬한 전투로 평가되며, 2차 대전 전체로도 가장 격렬했던 전투로 평가되기도 한다.⁵⁾ 미군은 오키나와를 점령하기 위해 해상과 지상에서, 또 공중에서 엄청난 포격과 폭격을 가했으며, 쏟아지는 포탄과 폭탄의 불바다로 인해 오키나와전투는 '철의 폭풍(鐵の暴風, typhoon of steel)'이라 불리게 되었다.

미군은 1944년 10월 3일 오키나와 공략을 결정하고('아이스버그작전 [Operation Iceberg]) 일주일 뒤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10·10 대공습). 1945년 3월 23일과 24일 오키나와 본섬에 대한 폭격과 함포사격을 각각 개시한 미군은 3월 26일 케라마(慶良間)열도에 상륙했고, 4월 1일 요미탄(讀谷)에서 차탄(北谷)에 이르는 오키나와 본섬 중서부해안에 상륙해 북상과 남하를 동시에 개시했다. 오키나와수비군인 제32군의 주력부대는 중남부 구릉지대에 지하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처음엔 소풍가듯 상륙해 행군하던 미군은 기노완의 카카즈(嘉敷)고지에서 32군사령부가 지하에 구축되어있던 옛 류큐왕국의 슈리(首里)성에 이르는 10킬로미터를 돌파하기 위해 약 50일간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일본군은 결국 5월말 본섬 최남단 마부니(摩文仁)로 퇴각했다. 6월 18일 미군사령관 버크너(Simon B. Buckner) 중장이 전선시찰 중 전사했으나, 6월 23일에는 32군 사령관 우시지마 미츠루(牛島滿) 중장과 참모장 초이사무(長勇) 중장이 자결함으로써 일본군의 조직적 저항이 종료되었다. 그러

5) 또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전투이기도 하다(존슨 2003, 77).

나 사령관이 죽기 직전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전투는 곧바로 끝나지 않았다. 미군이 오키나와작전의 종료를 선언한 것은 7월 2일이었고, 일본군이 카데나(嘉手納)에서 오키나와전투 항복문서에 조인한 것은 일본 정부가 9월 2일 미주리합상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나서인 9월 7일이었다.⁶⁾

미군은 지상군만 18만 명 이상, 해군과 보급부대까지 합해 54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이 전투에 투입했다. 일본군은 1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했는데, 그 중 3분의 1은 오키나와 현지에서 징집한 보조병력이었다. 오키나와현 원호과의 자료에 따르면, 총 20만656명의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사망했다. 미군 1만 2520명, 타지역 출신 일본군 6만5908명이 전사했고, 오키나와현에서 차출된 군인과 군속 2만8228명, 민간인 9만4000명이 목숨을 잃어, 오키나와현민의 희생은 12만2228명에 달했다(정영신 2008, 182). 이는 당시 오키나와 인구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전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Hein and Selden 2003, 13). 이 외에 군부(軍夫)나 ‘군위안부’로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약 1만 명이 희생되었으나 그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다(아라사끼 1998, 71-72).

텐고(天号)작전을 통해 1500회가 넘는 카미가제(神風) 특공(즉, 자살)공격으로 미군을 괴롭힌 일본 해군은 사상최대의 전함 야마토호를 비롯한 함선 16척과 7830대의 항공기를 잃었고, 미군은 36척의 함선이 침몰되고(파손 368척) 763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다(大田昌秀 1983, 248). 오키나와전투는 미해군에게는 진주만 기습을 포함해 단일 전투로는 제일 많은 함선을 잃은 전투였다. 육군과 해병대로서도 작은 면적의 섬에서 어느 전투보다도 더 많은 피를 흘린 전투였고, 양측 지상군 사령관들이 모두 전사했다. 장기간의 격렬한 전투

6) 미야코섬(宮古島) 수비군은 9월 26일에야 항복했다. VHS <1 フィート映像でつづる ドキュメント沖繩戦>(子どもたちにフィルムを通して沖縄戦を伝える会, 1995).

와 파괴, 민간인을 포함한 엄청난 인명 희생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으로 일본 본토에서의 지상전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⁷⁾ 이 때문에 오키나와에서의 치열한 전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이다(존슨 2003, 77-78).

원래 일본大本營(大本營)은 1944년 3월 오키나와수비군으로 제32군을 창설하면서 오키나와를 항공기지화해 남방진출로를 방비하려 했다(오키나와의 ‘불침항모화’). 그러나 우시지마 사령관(8월 8일 취임)과 초 참모장, 그리고 참모 야하라 히로미치(八原博通) 대좌 등 32군 수뇌부는 오키나와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11월 휘하 정예 병력인 제9사단이 타이완으로 차출되자 ‘전섬의 요새화’를 통한 ‘전략지구전(持久戰)’을 추진했다. 10월 하순 필리핀 레이 테해전에서 패한 후大本營 역시 1945년 1월 ‘본토결전’을 위한 오키나와 방어 구상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오키나와전투는 ‘현지자급의 총동원작전’ 양상을 띠며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총동원된 총력전이 되었다. 미군 또한 오키나와를 본토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 했기에 일본군을 확실하게 괴멸·소탕할 필요가 있어 무차별 포격으로 오키나와 전토를 유린하는 방식을 취했다(철의 폭풍). 오키나와전투가 장기간의 격렬한 지상전이 되어 엄청난 희생자를 낸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 게다가 고립된 좁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 ‘군민혼재’의 전장이 되어 ‘정규 군인을 상회하는 주민희생’을 야기했다(정영신 2008, 176-183).

근본적으로 일본의 지도부는 오키나와를 미군의 본토 상륙을 최대한 늦추어 본토결전을 위한 시간을 벌고, ‘국체호지(国体護持)’, 즉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한 강화교섭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용하고 버리는 ‘사석(捨石)’으로

7) DVD <Okinawa: The Last Battle>(The History Channel 1995 방영; A&E Television Networks, 2005). 오키나와전투가 미국인들에게 남긴 강렬한 인상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된다. DVD <Battlefield: Destination Okinawa>(The Discovery Channel 방영; Allegro Corporation, 2008).

삼았다. 지하요새와 방공호를 구축한 지구전이라는 제32군의 작전이나 ‘본토 결전을 위한 오키나와 방어’라는 대본영의 구상(및 정예 병력의 타이완 차출)은 바로 이를 의미했다. 아라사키 모리테루(1998, 70-71; 2008, 19-20)가 지적 하듯 그간 일본군은 사령부를 사수할 수 없게 되면 ‘옥쇄(玉碎)’했으나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사령부를 버리고 패잔병들을 모아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이는 ‘사석작전’에 입각했기 때문이다. 주민을 희생시키더라도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미군을 오키나와에 붙잡아두려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의 안위는 더더욱 일본군의 관심사가 못되었다.⁸⁾ 여기에 오키나와에 대한 내부 식민주의적 차별과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 일본군은 주민들을 학대하고 군대를 위한 희생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는 집단자결을 선동하거나 강제했으며(필드 1995; 도미야마 2002), 스파이 혐의 등을 씌워 학살하기도 했다(야카비 2008; Allen 2003). 이로 인해 오키나와 전투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단순히 정규군보다 더 많이 희생된 것을 넘어, 적군이 아닌 ‘이군’에 의해 더 많은 희생을 당했던 것이다.

2. 1피트운동의 출범⁹⁾

‘1피트운동(1フィート運動; the One-foot Film Movement)’은 이 같은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을 기록영상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풀뿌리 시민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전개한 ‘오키나와전기록필름 1피트운동모임(NPO法人 沖縄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의 원래 이름은 ‘아이들에게 필름을 통해

8) 예컨대 32군 참모장 초 이사무는 1945년 초 군의 중요한 사명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패배를 감수할 수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Allen 2003, 48-49).

9) 2절과 3절은 주은우(2007, 299-303)의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더해 확대한 것이다.

오키나와전을 알려주는 모임(子どもたちにフィルムを通して沖縄戦を伝える会)’으로서, 이 단체와 1피트운동의 목적은 이 이름 자체에 잘 나타나 있다.¹⁰⁾

일본의 뉴스영화와 기록영화는 제국의 팽창과 처음부터 나란히 발전해 왔다(Nornes 2003). 그럼에도 오키나와전투에 관한 일본 측 영상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1930년대 말까지는 신문사들이 뉴스영화를 주로 만들었는데, 1939년의 영화법 제정 이후 정부에 의해 1940년 4월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毎日; 東京日日新聞과 大阪毎日), 요미우리(読売) 세 신문사와 동맹통신사(同盟通信社)의 뉴스영화부문들이 통합되어 일본뉴스영화사(日本ニュース映画社)가 창립되었다. 이듬해 일본영화사(日本映画社, 니치에이[日映])로 이름을 바꾼 이 영화사는 한때 1천명의 스태프를 국내외에 파견하며 전시선전영화 제작을 주도했으며, 그 중심에는 1940년 6월부터 나온 <일본뉴스(日本ニュース)>가 있다.¹¹⁾ 그러나 오키나와전투와 관련해선 <오키나와결전(沖縄決戦)>과 <의열공정부대(義烈空挺部隊)> 두 편의 필름만 남아있을 뿐이었고, 여기서도 내레이션과 달리 영상은 오키나와전투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仲里 効外編 2003, 24).

반대로 미군은 오키나와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촬영하여 막대한 양의 동영상과 사진들을 남겼다. 원래 미국정부와 군부는 전쟁 초부터 영화를 이용해 참전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는데, 전쟁 말기에는 다가오는 냉전의 적국들이 가하는 압력 속에 자신이 수행한 전쟁의 ‘사실’을 의식적으로 기록해둘 필요성도 생겼다(淺川志保·山本アツ編 2003, 101).¹²⁾ 따라서 미군은 각 부대에 카메라맨을 배치해 ‘아이스버그작전’의 모든

10) 반면에 1피트운동모임의 영어 이름(Okinawa Historical Film Society)은 다소 모호하다.

11) Nornes(2003, 61-66 등), 일본어판 위키피디아(ja.wikipedia.org) ‘日本映画社’ 항목 참조.

12) 미군의 오키나와전투 촬영의 의식성은 자기반영적 성격마저 띠었다. 카메라맨들은 오키나와전투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촬영하는 카메라맨도 촬영했던 것이다. 다큐멘터리 <전쟁을

것을 카메라에 담았으며, 미군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오키나와의 제6해병사단(The 6th Marine Division on Okinawa)〉(1945)의 내레이션처럼 “오키나와는 폭탄뿐 아니라 카메라에게도 주요한 타깃이었다.”¹³⁾ 이 영화가 앞서 언급한 「류큐전영열전」에서 상영되었을 때 나카자토 이사오가 말했듯이, “미군에게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 최후의 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테크놀로지를 구사하여 철저하게 ‘보는’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仲里 効 外 編 2003, 24).

따라서 오키나와전투의 유일한 영상기록물은 미군에 의해 촬영된 필름들 뿐이었다. 1피트운동은 미군이 촬영한 이 2천편 이상의 필름들(仲里 効 外 編 2003, 27)을 시민들의 모금으로 구입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 아이디어는 히로시마의 ‘10피트운동(10フィート運動)’에서 얻은 것이었다(我謝幸男 2003, 28; 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93, 51, 66). 10피트운동은 미국 국립공문서관(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있던 8만5천 피트에 달하는 원폭투하 직후의 히로시마·나가사키 관련 필름들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10피트의 필름을 구입할 수 있는 3천 엔씩 기부하여 모두 입수하는 것을 목표로 1980년 7월에 시작되었는데, 전국에서 18억 엔을 모금해 이듬해인 1981년 4월에는 냉전시절 술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기록영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의 효과(The Effects of the Atomic Bomb on Hiroshima and Nagasaki)〉(1946)¹⁴⁾를

기록한다(Shooting War)〉(written and directed by Richard Schickel, DreamWorks, 2000) 참조.

13) “Okinawa was a principal target for cameras as well as bombs”(영화 시작 후 1분 50초 가량 지난 지점에서 등장한다). 나카자토 이사오(仲里 効 2005, 3)는 이 내레이션과 관련하여 비릴리오(Paul Virilio)의 『전쟁과 영화』를 인용한다. “영화는 전쟁이고, 전쟁은 영화이다.”

14) 이 영화는 원폭투하 직후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달려간 니치에이의 영화인들이 문부성의 일본학술연구회의가 조직한 원자폭탄재해조사연구특별위원회와 함께 촬영했다.

포함한 미국 전략폭격조사단(USSBS) 제작 필름들을 비롯해서 10만 피트에 달하는 피폭 직후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영상을 일본으로 들여왔다(Nornes 2003, 217-218, 246).¹⁵⁾

히로시마에서 10피트운동이 시작된 지 3년 뒤, 같은 방법으로 1피트운동이 오키나와에서 출범했다. 1피트운동모임의 운영위원인 가자 유키오(我謝幸男 2003, 28)의 회고에 따르면, 1983년 6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다큐멘터리작가 우에하라 쇼넨(上原正稔)(또는 우에하라 마사토시)이 당시 류큐대학 법문학부 교수였던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로부터 미국에 있는 오키나와전투 필름들을 모아보라는 권유를 받은 것이 1피트운동의 출발이었다. 우에하라는 그 전부터 〈오키나와타임스(沖縄タイムズ)〉에 미국의 국립공문서관에 있는 오키나와전투 관련 자료들에 착안한 글들을 쓰고 있었고, 오키나와전투에 관해 많은 글과 책을 쓰고 있던 오타 역시 1976~77년 미 국방성에서 막대한 양의 오키나와전투 관련 사진들을 발견해 천수백점을 가져온 이래 거의 매년 미국

USSBS의 맥거번(Daniel McGovern)의 관리·후원을 받기도 했으나, 1946년 완성되자마자 미군 당국에 압수되었다. 미군정기 동안 제작된 몇몇이 들킬 경우 '오키나와에서 중노동형에 처해질 위험을 감수하고 필름의 일부를 숨겨두었으나, 1951년에 니치에이를 인수(日本映画新社로 바뀜)한 도호(東宝)는 이 필름을 통제했다. 맥거번이 만들어둔 16mm 프린트가 1967년에 반환되었으나 문부성에 의해 제목이 변경되고('효과'를 '영향'으로 바꾸었다. 〈広島・長崎における原子爆弾の影響〉) 심한 검열이 이루어진 채 공개되었다. 그러나 1968년 다큐멘터리영화학자 바누(Erik Barnouw)가 미국방성에 문의한 결과 맥거번이 정리해둔 이 영화의 16mm와 35mm 프린트 모두 미국 국립공문서관에 공유부문(public domain)으로 분류되어 보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노턴 공군기지에 보관되어 있던 원본 역시 1994년 이후 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10피트운동은 1994년에는 이 영화의 일본어판 제작을 추진하기도 했다(이때는 제목에서 '효과'를 '재해(災害)'로 변경했다). 상세한 내용은 Nornes(2003, 191-219, 243-246)를 보라.

15) 1980년 봄, 뒤에 10피트운동의 사무국장이 되는 이와쿠라 츠토무(岩倉 務)가 NHK 히로시마방송국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NHK 평화아카이브[NHK 平和アーカイブズ] 참조, http://www.nhk.or.jp/peace/chrono/chrono_08.html). 입수된 필름들은 TV로도 방영되었다.

을 왕래하며 사진과 기밀(해제)문서들을 수집해 왔기 때문에 국립공문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알고 있었으며, 영상자료의 중요성 및 정지사진의 한계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沖繩戰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93, 66-67; 大田昌秀 1983, 10-13).¹⁶⁾

미국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된 자료는 “누군가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공문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필름 자료관의 하나”이다(Normes 2003, 204, 244). 우에하라라는 곧바로 미국 공문서관에 조회했고, 공문서관은 7월 하순 오키나와전투에 관한 100여 편의 필름 목록을 보내왔다. 우에하라와 그 친구들은 곧 기금마련 캠페인을 시작했다. 10월 25일의 발족준비모임에서 류큐대학 명예교수이며 오키나와전투 당시 히메유리학도대(ひめゆり学徒隊)를 인솔했던 언어학자 나카소네 세이젠(仲宗根政善)이 대표로 선출되었고,¹⁷⁾ 태평양전쟁 개전일인 12월 8일 1피트운동모임

16) 오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오키나와전투의 실상을 가르쳐주기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술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大田昌秀 1980), 이는 1피트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도 부합한다. 오타의 학문적 관심의 형성에는 오키나와사범학교 재학 중 미군이 본섬에 상륙하기 전날인 1945년 3월 31일 ‘철혈군황대(鉄血勤皇隊)’의 일원으로 전쟁에 동원되었던 자신의 체험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동원된 386명의 학생들 중 226명이 사망했다)(Yonetani 2003, 252). 오타는 1피트운동의 발기인이자 운영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데(나중에는 고문), 1990년 11월에는 오키나와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3명의 미군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한 1995년에는 반전지주들 소유의 미군용지 강제사용에 필요한 지사의 대리서명 절차 수행을 거부했다(아라사키 2008, 193-220).

17) 히메유리(姫百合)학도대는 오키나와사범학교여자부와 현립제1고등여학교의 학생 222명과 교사 18명으로 구성된 합동 중군간호부대로서, 많은 학생(123명)과 교사(13명)가 사망해 오키나와전투의 비극을 상징하는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 이토만(糸満)시에 ‘히메유리의 탑’과 평화기념자료관이 건립되어 있다(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2005;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資料委員会 2004; 필드 1995, 102-103; 도미야마 2002, 275). 나카소네 세이젠은 사범학교여자부 교사로서 1945년 히메유리학도대를 인솔했다. 이때의 경험으로 전후에 평화운동에 헌신했으며, 히메유리학도대의 수기를 모은 책을 내기도 했다(仲宗根政善 1982). 1995년 2월 사망할 때까지 1피트운동 대표를 역임했으며, 학자로서는 류큐 방언 연구 등에 기여했다. 나카소네 세이젠에 대해서는 沖繩言語研究センター(1998)를 참조하라.

이 정식으로 결성되었다.¹⁸⁾

모금액은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름 1피트 당 100엔으로 정해졌는데, 한 달 보름쯤 뒤인 1984년 1월 21일 시점에 이미 약 5백 명의 시민으로부터 102만5천 엔이 모금되어 2월에는 미국 국립공문서관에 12편의 필름을 1차 발주할 수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필름들이 도착하여 16일 현청소재지 나하(那覇)시의 시민회관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곳은 날씨에도 회관 밖에서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약 2천5백 명의 관객들은 “옛날의 자신을 찾아내려 애쓰면서 화면을 삼킬 듯이 쳐다보았다”(我謝幸男 2003, 28).¹⁹⁾ 이 필름들은 5월 27일 미에(三重)현 츠(津)시에서의 본토 최초 상영을 비롯해 곳곳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상영되었고, 미공개필름 구입도 계속되었다. 1986년 2월까지 1피트운동모임은 4천3백만 엔 이상의 돈을 모금했고, 미국 공문서관으로부터 163편 8만2천 피트의 필름을 구입했다. 이 필름들은 월평균 20~25회 상영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를 관람하고 있었다.

3. 1피트운동의 '자주영화' 제작

1피트운동모임은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 공문서관에서 구입한 필름들을 가지고 오키나와 주민들의 관점에 입각한 '자주영화(自主映画)'를 제작하는 일을 추진했다. 상영 시 해설이나 강연을 병행했어도 무성필름인 데서 오는 문제가 있었고, 어디까지나 미군에 의해 촬영된 필름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기

18) 이하에서 1피트운동에 관해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내용들은 沖繩戦記録フィルム1 フィート運動の会(1993, 1998, 2003, 2008)에 근거한다. 간단한 설명은 我謝幸男(2003, 28-29)를 보라.

19) 화면에서 자신이나 가족과 친지의 모습을 찾아내려 시도하는 것은 전쟁기에 제작된 뉴스 영화나 기록영화를 관람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 한 사례에 대해 Normes(2003, x vi) 참조.

때문이다(주민들이 연기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 장면들도 있었다).²⁰⁾ 우에하라가 얼마안가 모임을 떠나고 사무국장 호카마 세이쇼(外間政章)가 병으로 직책 수행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영화제작이 시작되었다.²¹⁾ 1985년 2월부터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오키나와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제작하며, 스스로 제작비를 마련하고, 주민 입장에 선 해설을 하며, 더 많은 필름을 입수하고, 본토로 운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대하며, 필름 외의 정보도 포함시킨다는 기본 원칙이 확립되었다. 9월에는 아이카와 나오토(愛川直人)가 감독으로 위촉되었고, 이듬해 3월에는 영화제목과 주제가 가사를 일반에게 공모했다(131개의 제목과 49개의 가사가 응모되었다). 이리하여 상영시간 55분의 〈오키나와 전 · 미래에의 증언(沖繩戦・未来への証言)〉이 드디어 완성되었고, 1986년 5월 21일 나하시민회관에서 공개되었다.

한 달 뒤 평화운동가 나카무라 후미코(中村文子)를 2대 사무국장으로 맞이한 1피트운동모임은 〈오키나와전 · 미래에의 증언〉을 중심으로 오키나와전

20) 이에 앞서 히로시마의 10피트운동 역시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한 바 있었다. 10피트운동을 전개한 '아이들에게 세계에 피폭의 기록을 보내는 모임(子供たちに世界に被爆の記録を送る会)'은 미국 공문서관에서 입수한 필름들을 이용해 〈인간을 돌려줘(にんげんをかえせ)〉(타치마나 유타카 祐典 감독, 1982), 〈예언(予言)〉(하니 스스무 羽仁 進 감독, 1982), 〈역사: 핵평탄의 시대(歴史=核狂乱の時代)〉(하니 스스무 감독, 1983) 등 수편의 그들 자신의 '원폭영화'들을 제작했다. 현재 10피트운동 역시 많이 꺼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여름에는 시모노세키(下関)에서 3년 만에 10피트운동 영화들의 상영회가 추진된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마이니치신문 야마구치(山口) 지방판 2013년 8월 17일자. <http://mainichi.jp/area/yamaguchi/news/20130817cdllk35040361000c.html>).

21) 우에하라는 1984년 5월 16일의 나하시민회관에서의 최초상영회 때까지는 사무차장으로 일했고 그 이후 모임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1984년). 『1피트운동 10주년 기념지』에는 그가 개인적인 이유로 떠났다고 간단히 언급되고 있으나(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93, 117 등을 보라), 결별 이유는 노선 차이와 임원들과의 갈등이었던 것 같다. 우에하라는 독자적으로 오키나와전투 당시의 필름을 발굴·수집하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왔으며, 1피트운동이 해산될 때 그때까지 모금된 기금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그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 <http://ueharashonen.web.fc2.com/>). 다른 한편, 초대 사무국장 호카마는 언론인 출신으로 나하시립도서관장을 지낸 바 있었다.

투 기록영상을 상영·보급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²²⁾ 〈미래에의 증언〉은 그때까지 구입한 8만2천 피트, 약 30시간 분량의 필름들에 기초해 만들어졌고 제작비는 1천5백만 엔이 소요되었다. 운동모임은 이 영화를 16mm 필름과 비디오로 제작했으며,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상영하기엔 55분 분량이 다소 길었으므로 내용을 축약한 32분판 16mm 필름 및 비디오도 만들었다. 또한 1988년에는 영어판 16mm 필름과 비디오를 제작했는데, 2000년 7월 큐슈와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어판 비디오(55분판)를 G8 정상들과 EU에 보내기도 했다.

〈미래에의 증언〉은 평화기념공원(沖繩県平和祈念公園)에서 치러진 ‘현민유골수습위령제’를 보여주며 시작해, ‘10·10 대공습’부터 오키나와전투의 전개 양상을 미군이 촬영한 기록필름과 지도 및 도표, 해설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간다.²³⁾ 오키나와전투의 격렬함과 참혹함, 주민들의 고통과 수난을 보여주는 수많은 영상들에다가, 제복 차림의 히로히토(裕仁)를 추축국 지도자들과 병렬시킨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원인을 분명히 ‘천황(제)’에 귀속시키고, 학생들의 군사훈련 사진을 통해 오키나와의 비극적 희생이 ‘황민(皇民)화’와 군국주의 교육에 뿌리를 둘을 짚고 있다. 여기에 오키나와 민속무용과 음악을 삽입하고, 전후의 미군기지화와 기지관련 사건·사고, 오키나와인들의 반기지투쟁, 학생들에 대한 평화교육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평화의 세계를 염원하는 ‘오키나와의 마음’을 전하며 끝맺는다.

22) 나카무라 후미코는 어떤 작은 평화집회에도 늘 함께 해, 오키나와 반전·평화운동의 ‘얼굴’로 일컬어진다. 초등학교 교사였으나, 오키나와전투로 어머니와 많은 제자들을 잃고 학생들에게 군국교육을 한 것을 평생을 두고 후회했다(그녀의 제자 중 5명이 히메유리학도대가 되었고 그중 2명이 사망했다). 72세의 나이로 1피트운동 사무국장에 취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2006년 12월 사무국장 직을 내려놓고 고문이 되었다. 2013년 6월 27일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眞鍋和子(2004) 등 참조.

23) 시나리오도 참조할 수 있다(沖繩戰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86; 1993, 231-255).

여기서 1피트운동이 시작되기 바로 전해인 1982년 6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년도 문부성 검증 내용이 밝혀져 아시아 각국의 강한 비판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부성에 의해 일본의 중국 ‘침략’이 ‘진출’로 표현되고 난징(南京)대학살이 왜곡된 것과 더불어 오키나와전투와 관련해서 일본군의 주민학살 부분이 삭제되어 오키나와에서도 거센 항의가 일어났다(아라사키 2008, 124-125). 1피트운동의 출범이 이런 맥락에 위치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²⁴⁾ 1피트운동의 기억투쟁으로서의 성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1피트운동이 최초로 오키나와전투 기록필름들을 공개한 날인 5월 16일은 ‘복귀기념일’ 다음 날이며,²⁵⁾ <미래에의 증언>의 제작이 시작된 1985년은 오키나와전투 4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므로 1피트운동이 ‘오키나와전 종결 5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자주영화’를 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1피트영상으로 엮는 도큐먼트 오키나와전(1フィート映像でつづるドキュメント沖縄戦)>은 1995년 4월 1일(50년 전 미군이 본섬에 처음 상륙했던 날) 공개되었다. 제작을 지휘한 나카마츠 쇼지(仲松昌次)와 감독을 맡은 시바타 쇼헤이(柴田昌平)²⁶⁾는 12년간 수집된 7만6천 피트, 36시간 분량의 필름으로부터(沖縄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98, 21)²⁷⁾ 상영시간 57분이 약간 넘는 기록영화를 만들었다. <도

24) 1965년부터 일본정부를 상대로 교과서검증 소송을 벌여온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는 이때의 검증과 관련해 1984년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는데, 난징대학살과 731부대, 청일전쟁 당시 조선 민중의 항일투쟁 등과 함께 오키나와전투 당시 일본군에 의한 주민학살 기술 문제도 쟁점 중의 하나였다(문부성은 자발적인 집단자결이란 입장이었다)(Nozaki and Inokuchi 2000, 114-119). 이 소송에서 오타 마사히데는 1988년 이에나가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다(Yonetani 2003, 269 n37).

25) 패전 후 오키나와는 계속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1972년 5월 15일 일본으로 반환되었다.

26) 시바타는 1994년부터 13년간의 촬영(100시간이 넘는 분량)으로 다큐멘터리영화 <히메유리>를 만들었다(2007년 3월 공개, 131분). 일본어판 위키피디아 ‘柴田昌平’, ‘ひめゆり(ドキュメンタリー)’ 항목.

27) 이 수치와 <미래에의 증언>이 기초한 8만2천 피트, 30시간 분량의 필름이란 수치(沖縄戦

큐먼트 오키나와전)은 완성 직전인 2월 14일 세상을 떠난 나카소네 세이젠 대표의 “오키나와전투의 실상을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전할 의무”와 “오키나와를 세계평화의 원점으로 삼고 싶은 염원”을 담은 메시지 자막으로 시작한다. 이 영화는 ‘오키나와전 실사영상 총집편’으로 기획된 비디오로서, 〈미래에의 증언〉과는 달리 오키나와전투의 원인과 전개, 참상 등의 전달에만 집중하고 있다.²⁸⁾

2005년 ‘오키나와전 종결 60주년’을 맞아선 1피트운동모임의 3번째 영화 〈1피트영상과 전쟁체험자의 증언으로 엮는 오키나와전의 증언(1フィートの映像と戦争体験者の証言でつづる 沖縄戦の証言)〉이 제작되었다. 오키나와 출신의 자나모토 케이후쿠(謝名元慶福)가 각본과 감독을 맡은 35분 분량의 이 영화는 2005년 12월 비디오테이프와 DVD로 제작·시판되었으며, 2006년 1월에 보정작업이 추가되고 3월에는 영어판이 완성되었다.²⁹⁾ 〈오키나와전의 증언〉은 미군이 촬영한 오키나와전투 장면들과 현재의 오키나와 장면들(자연과 아이들, 민속공연 및 축제 등)을 교차시키면서 오키나와전투를 설명하는데, 제목에도 잘 드러나듯이 오키나와전투 생존자들의 직접 증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뷰 영상에 등장하는 6명의 증인들에는 히메유리 학도대 생존자뿐 아니라 군부로서 한반도에서 끌려온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취재를 통해서까지 조선인 군부와 군위안부의 강제연행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86, 18; 1993, 117, 246)는 서로 모순되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28) 이 영화도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沖縄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2003, 99-130). 2003년 아미가타영화제 「류큐전영열전」에서는 이 영화와 1피트운동모임이 수집한 필름 중 120분 분량의 미편집 필름이 상영되었다(仲里 効外 編 2003, 26-27; 浅川志保·山本アン 編 2003, 101-102).

29) 시판되자마자 해적판이 발견되기도 했다(1986년 1월)(沖縄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2008, 68). 시나리오는 같은 책(45-61)을 참조할 것.

2009년 3월에 완성된 <군대가 있던 섬—케라마의 증언(軍隊がいた島—慶良間の証言)>은 <오키나와전의 증언>의 후속편이자 일본정부와 직접적이고 긴급한 기억투쟁을 벌이는 영화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된, 2007년 3월말 공개된 문부과학성의 역사교과서검증결과에 대한 대항이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검증결과에 항의하며 오키나와에선 일본군의 ‘집단지결’ 명령과 강제 및 주민학살에 대한 생존자 증언들이 쏟아졌는데, 2007년 6월에는 1피트운동모임이 보유하고 있던 필름 속에서 케라마열도에 상륙한 미군이 자마미섬(座間味島)의 한 호(壕)에서 ‘집단지결’ 직후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었다.³⁰⁾ 최초로 구체적인 장소가 확인된 이 영상은 <군대가 있던 섬>에 수록되었다. 자나모토 케이후쿠가 다시 감독을 맡은 38분 분량의 이 영화는 <오키나와전의 증언>의 영상과 증언을 많이 활용하는데(이 영화에서도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 문제 및 한국 취재 영상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제가 말해주듯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제일 먼저 상륙해 많은 주민들이 ‘집단지결’했던 케라마의 비극에 집중한다. 이 영화는 1피트운동모임의 ‘설립25주년기념’ 영화이자 마지막 영화가 되었다.

Ⅲ. 1피트운동 제작 영화와 기억의 정치

이제 1피트운동이 제작한 영화들의 텍스트 내부에서 전개되는 기억의 정치를 세 가지 주제에 집중해 검토한다. 먼저 오키나와전투에 대한 영상과 기억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쇼와(昭和) 천황의 이미지, 그리고 케라마열도에서 생포된 조선인 군부들의 이미지를 다룬다.

30) <沖縄タイムス> 2007년 6월 22일(沖縄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2008, 73에 수록).

1. 전쟁의 기억

1997년 1월 후텐마기지의 대체시설로 헤노코에 해상헬기기지를 건설하는 미일기본합의가 체결되고, 4월에는 토지 강제사용을 위한 미군용지특조법 개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가결된 뒤, 끊어오르는 오키나와 현지의 민심을 달래려는 몸짓의 하나로 8월 23일 일본청년회의소(日本青年會議所, JCI-Japan) 오키나와지역대회에 참석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는 연설 중 20년 전 츠시마마루(対馬丸)호³¹ 희생자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의 하나임을 언급하며 오키나와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일본유족회(日本遺族會)와도 깊은 관계에 있던³² 하시모토의 연설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상실을 공유하며 국가적 추도에 의해 보상받는 애도의 공동체 속으로 오키나와를 전유해 들이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기억을 국가의 역사 내러티브로 대체하려는 시도였다(Nelson 2008, 5-18).

하시모토의 연설은 일본 유일의 지상전 무대가 된 ‘비극의 섬’이라는 오키나와의 스테레오타입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국민국가의 오래된 시선(仲埜 勉 2005, 3), 오키나와의 비극을 자기 일처럼 애통해하는 가운데 자신을 희생자로 구성해내고 가해자로서의 과거를 망각하는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담론(도미야마 2002, 108-110)과 같은 선상에 있다. 이런 시선과 담론에서 오키나와전

31) 1944년 7월 7일 남서제도의 노약부녀자·학동 소개령이 내려졌다. 나하초등학생 775명을 비롯해 1700여 명이 태운 츠시마마루호는 다른 두 척의 배와 함께 8월 20일 저녁 나하를 출발해 큐슈로 향하던 중 22일 밤 미국잠수함 보핀(Bowfin)호에 의해 격침되었고, 아동 59명을 포함해 170여 명이 구조되었다(大田昌秀 1980, 38-47; 일본어판 위키피디아 ‘対馬丸’ 항목; DVD 〈沖繩戦の証言〉).

32) 하시모토는 1993~95년 일본유족회장을 맡았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유족회는 자민당의 중요한 지지 세력이자 후생노동성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지탱하는 지주이다. 하시모토는 또한 후생정무차관(1970년 1월 임명)과 후생대신(1978년 12월 임명)을 역임한 경력도 있다.

투의 비극을 상징하는 히메유리학도대는 오히려 본토 일본인이 스스로를 진혼하는 통로가 된다(도미야마 2002, 109). 그래서인지 히메유리학도대는 전후 일본영화의 인기 있는 소재로서, 본토에서 군정 종료 직후 이마이 타다시(今井定) 감독의 〈히메유리의 탑(ひめゆりの塔)〉(1953)이 나온 이래 중요 시점마다 영화로 제작되어 조국을 위해 순국한 희생자 이미지를 재생산하며 국가 정체성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다(仲程昌德 2003; 주은우 2008, 287-298). 또, 도호 영화사의 ‘격동의 쇼와사’ 시리즈의 하나로서 오키나와의 ‘조국복귀’를 앞둔 1971년에 공개된 오카모토 키하치(岡本喜八) 감독의 〈오키나와결전(激動の昭和史・沖縄決戦)〉은 오키나와전투를 연대기적으로 충실히 묘사하면서 고뇌 속에 임무를 다하는 군대, 주민들에게 헌신적인 관리들, 학도병에서 이발사, 매춘부까지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 조국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모습을 149분 동안 처절하게 스크린에 펼쳐놓는다.³³⁾

1피트운동이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오키나와전투에 관한 이런 이미지와 담론들이다. 1피트운동이 만든 영화들은 자기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에 희생된 오키나와인들의 고통과 죽음을 보여주려 진력한다. 그래서 미군의 십만 번째 포격(〈미래에의 증언〉)을 포함해 ‘철의 폭풍’의 격렬함을 보여주는 장면들과 일본군의 끔찍한 시체와 화염방사기에 불타 죽어가는 일본군 등 전투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많지만, 더 큰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은 무고한 주민들의 고통을 담은 장면들이다. 〈미래에의 증언〉과 〈도큐먼트 오키나와전〉에서 그 장면들은 민간인의 주검, 두려움 속에 손자를 감싸 안은 노인, 숨어있던 우물에서 끌어올려져 나오는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노인들, 미군에게 구출된 뒤에

33) 오카모토의 이 영화는 ‘사석작전’ 등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편이고, 미군 탱크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무덤 앞에서 춤추는 귀기어린 노파의 장면 등 양가적이거나 혼란스런 부분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국가와 그 역사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음은 분명하다. 집단자결은 자발적인 것으로 묘사되며, 오키나와 부임을 명령받은 우시지마 사령관에게 대본영의 상관이 옥쇄는 피하라고 귀엣말로 말하는 장면은 마치 일본의 수뇌부가 오키나와 주민들의 인위를 염려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도 오들오들 떨리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어린 소녀의 가녀린 몸과 커다란 눈망을 등으로 요약된다. 1피트운동의 영화들은 주민들의 이 고통이 조국을 위한 자기희생이 아니라 오키나와에 강제된 황민화에 의한 것임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소집영장과 철혈근황대, 학생들의 군사훈련 등의 사진들로 미군 촬영 필름의 빈 곳을 보충하며, 츠시마마루호와 히메유리 학도대의 비극도 내셔널리즘 담론과는 반대로 군국주의의 귀결이란 맥락에 위치 지운다. 15개의 학도대 위령탑과 추모비가 나오는 〈오키나와전의 증언〉 끝부분의 내레이션에 따르면 2,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원되어 1,200명 이상이 숨졌다.

1피트운동의 영화들은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기원이란 견지에서 미군기지를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전투와 관련해서 미국보다 일본에 훨씬 더 비판적이다. 사람들이 숨어 있는 동굴 입구에서 사격을 가하는 미군이나 화염방사기를 내뿜는 미군 탱크 등의 장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죽음의 위협에서 구출해주고, 헤어졌던 가족이 상봉할 수 있게 해주며, 식량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수용소에서나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해주는 구원자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들이 미군이 촬영한 필름들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전쟁에 대한 오키나와인들의 기억 자체가 미국의 역할보다 일본군에 의한 만행과 집단자멸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오키나와인들은 미군을 황군(皇軍) 병사들처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구체적인 인격체로서보다는 일본 군국주의 논리가 빚어낸 치명적이고도 익명적인 결과로서 회상하는 바(Hein and Selden 2003, 18; Allen 2003), 이는 전쟁의 비극을 황민화와 군국주의의 결과로 진단하는 1피트운동의 영화들도 공유하는 회상 방식이다.³⁴⁾

34) 오키나와 전투 당시 미군 병사들 역시 주민들에게 잔학한 행위를 가하기도 했다(Dower 1986, 63).

〈오키나와전의 증언〉 말미에서 한 증언자가 말하듯, 오키나와전투는 군대가 ‘양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전형적인 예였다. 〈미래에의 증언〉과 〈도큐먼트 오키나와전〉에서 병사들이 백기를 든 소녀의 뒤에서 걷고 있는 장면, 마치 어린 소녀를 앞세워 투항하는 듯한 그 장면은 ‘황군’의 무능과 위선을 극적으로 시각화하는 효과를 낳는다.³⁵⁾ 이 천황의 군대는 도리어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고 방공호로 이용한 자연동굴 가마(ガマ) 밖으로 내쫓거나 위험한 입구 쪽으로 내몰았으며, 중국에는 집단자결을 강요했다. 또 오키나와 방언을 금지하고, 오키나와어를 사용하거나 영어를 아는 주민을 스파이로 몰아 처형하는 등 주민학살을 자행했다(도미야마 2002, 77-89; Allen 2003, 48, 55; 大城將保 2007, 127-137, 172-177; 야카비 2008).³⁶⁾ 그러나 1피트운동의 영화들은 미군이 촬영한 필름에 기초했기 때문에 가마 속 주민들의 고난과 공포는 영상화될 수 없었고(주은우 2007, 316), 전쟁의 승리자가 남긴 기록물에서 ‘죽음의 심연’을 방황하고 ‘생존의 영도’에 내던져진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仲里 効外編 2003, 24). 이 공백은 일본군의 주민학살과 ‘스파이 처분’ 등에 관한 평화기념자료관(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 소장 자료들이나 (〈미래에의 증언〉) 전후의 신문기사 및 당시 군대기록들(〈도큐먼트 오키나와전〉)의 사진으로 메워지고 있었다.

35) 소녀 뒤의 병사들의 실제 의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들은 우연히 합류한 것일 수도 있다. 백기를 든 소녀는 히가 토미코(比嘉富子)로 당시 7살이었다. 1945년 6월 25일 마부니에서 투항하는 장면으로, 카메라 셔터 소리를 방아쇠 소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진은 유명하다. 스틸사진은 1977년 세상에 알려졌고 1984년 1피트운동이 공개한 필름에도 그녀의 투항 장면이 들어 있었다. 1피트운동모임에 따르면 1987년 10월 21일 사무국을 방문한 히가는 러시 필름을 반복해 보고 자신임을 확인했다(沖縄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93, 205). 그녀는 1988년 7월 미국에서 자신의 스틸사진을 찍은 존 헨드릭슨(John Hendrickson)과 해후했고(동영상을 촬영한 리처드 베이글리[Richard Bagley]는 사망), 1989년 자신의 전쟁 체험을 아동용 책으로 펴냈다(比嘉富子 2000). 그녀의 이야기는 TV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일본어판 위키피디아 ‘白旗の少女’ 항목).

36) 大城將保(2007, 101-107)는 집단자결과 주민학살의 사례들을 목록화해 정리해 놓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0년대 1피트운동의 영화들에서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오키나와전의 증언〉에는 츠시마마루호의 생존자, 케라마열도 도카시키섬(渡嘉敷島)에서의 전쟁 체험자, 케라마열도 아카섬(阿嘉島)의 조선인 군부 생존자, 오키나와 본섬 마에다(前田)고지전투 참전 학도병, 히메유리학도대 생존자, 시라우메(白梅)간호대³⁷⁾ 생존자 등 6명의 증언 영상이 수록되어 전쟁의 비참함을 생생히 전달한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일본군에 의해 유도·강제된 집단자결(그래서 오키나와에서는 ‘집단사(集團死)란 말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과 일본군의 스파이처분 및 주민학살이다. 특히 미군이 본섬보다 앞서 상륙한 케라마열도에서는, 주민들이 대거 산에서 내려와 투항하는 장면도 보이지만 일본군이 키워놓은 미군에 대한 공포심이 더해져 수많은 집단자결자가 나왔다. 생존자의 증언처럼 도카시키섬에서는 일본군의 명령에 의해 300명 이상의 주민이 수류탄 등으로 자결했다.³⁸⁾ 또 아카섬에서는 배가 고파 나락을 훑어먹은 조선인 군부 12명이 총살당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도, 시라우메간호대 생존자는 가마에서 병사가 유아를 수건으로 질식사시킨 일을 증언한다.

케라마열도의 비극에 집중하는 〈군대가 있던 섬〉에서는 14명(책을 통한 증언까지 합하면 15명)의 전쟁 체험자 증언을 통해 게루마섬(慶留間島)에서 아카섬, 자마미섬, 야카비섬(屋嘉比島), 도카시키섬과 마에섬(前島)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이웃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도 해야 했던 집단자결의 참상과 주민학살의 무자비함이 폭로된다. 특히 도카시키섬은 길게 다루어지는데, 섬의 수비대장 아카마츠 요시츠구(赤松嘉次)대위는 집단자결을 명령하고, 미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 가족을 데리러 온 주민들을 참수했다.³⁹⁾ 자마미섬에

37) 오키나와현립제2고등여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간호부대로서 미군 상륙 당시 46명이 입대해 있었고 이중 22명이 전사했다. 이토만시 쿠니요시(国吉)에 〈시라우메의 탑〉이 권립되어 있다.

38) 352명(大田昌秀 1983, 252) 내지 329명(大城将保 2007, 101)의 주민이 집단사했다.

서도 그 못지않게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⁴⁰⁾ 당시 10세였던 한 증인은 수류탄을 터뜨렸으나 미처 죽지 않은 부인을 면도칼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교장 선생님의 비극을 증언한다. 특히 자마미섬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초로 구체적 장소가 확인된 영상 속의 집단자결현장이 있는 곳이다. 67명이 희생된 ‘산업조합호(産業組合壕)’가 그곳으로(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2008, 73), 〈군대가 있던 섬〉에 수록된 2컷의 그 정지영상은 집단자결의 참상을 눈으로 확인케 한다.⁴¹⁾

〈군대가 있던 섬〉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뇌리에 박힌 이런 외상적인 체험을 부정하는 문부과학성의 2007년도 교과서검정결과에 대해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언은 오키나와의 전쟁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그것은 조국을 위해 스스로 신명을 바친 희생에 관한 기억이 아니라, 황민화와 군국주의에 의해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강요된 희생과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국가의 군대에게 당한 고통으로 채워진 외상적인 기억이다. 이렇게 오키나와전투의 생존자들은 미군이 촬영한 영상 위에 오키나와 주민의 생생한 전쟁 체험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붙여넣는다. 확실히 그것은 “승자의 기록을 패자의 기억 편에서 읽어내는”(仲里 効

39) 투항을 권고한 이에섬(伊江島)주민 6명, 스파이 용의자 5명이 처형되었다(大城將保 2007, 104).

40) 오타(大田昌秀 1983, 252)에 따르면 379명이 ‘자결’했고, 오시로(大城將保 2007, 101)에 따르면 자마미촌 내 자마미섬에서 234명, 게루마섬에서 53명, 야카비섬에서 10명이 ‘자결’했다. 또, 여기서도 많은 주민들이 처형당했다. 조선인 군부 12명이 처형된 아카섬도 자마미촌에 속하는데, 스파이 혐의로 2명의 주민이 더 처형되었다. 자마미섬에서는 투항을 권고한 주민 1명이 처형되었다.

41) 오에 겐자부로는 1970년에 출간된 『오키나와 노트』에서 케라마열도의 집단자결과 특히 도카시키템의 수비대장이었던 아카마즈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했다(大江健三郎 2012b, 63-64, 183-189). 이에 대해 2005년 8월 자마미섬의 수비대장이었던 우메자와 유타카(梅澤裕)와 사망한 아카마즈의 동생이 오에와 출판사(岩波書店)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大城將保 2007, 38 이하).

外編 2003, 24) 한 방법일 것이다.

2. 쇼와 천황의 초상

〈미래에의 증언〉은 앞부분에 추축국 3국의 군사적 팽창(군대의 행진) 장면들과 히로히토와 히틀러 및 무솔리니, 즉 3국동맹의 최고 수뇌 3인을 한 프레임에 나란히 담은 샷을 배치한다. 이 장면들은 미국의 선전영화 「우리는 왜 싸우는가(Why We Fight)」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전쟁의 서곡(Prelude to War)〉(1942)에서 가져온 것이다.⁴²⁾ 이 시리즈에서 온 장면들의 삽입은 〈도큐먼트 오키나와전〉에서는 더 확대된다. 여기서는 〈전쟁의 서곡〉과 더불어 〈너의 적 일본을 알라(Know Your Enemy - Japan)〉를 이용해 일본군이 만주와 중국을 침략하는 모습과 출정하기 전 야스쿠니신사에서 참배하고 황궁 앞을 행진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⁴³⁾ 1피트운동의 두 영화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

42) 「우리는 왜 싸우는가」 시리즈는 전쟁부(War Department)의 '오리엔테이션 영화'로서, 육군참모총장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당대 최고의 할리우드 영화감독 프랭크 캐프라(Frank Capra)의 총책임 아래 1942년부터 1945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전쟁의 서곡〉, 〈나찌의 습격(The Nazis Strike)〉, 〈분할점령(Divide and Conquer)〉, 〈영국의 전투(The Battle of Britain)〉, 〈러시아의 전투(The Battle of Russia)〉, 〈중국의 전투(The Battle of China)〉, 〈미국의 전쟁(War Comes to America)〉 일곱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캐프라와 제작진은 뉴스영화와 아카이브 자료, 적국의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적에게서 노획한 필름 등 다양한 자료들로 이 영화들을 만들었다. 〈전쟁의 서곡〉을 본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이 이 영화를 보게 하자고 제안했고, 마셜은 모든 병사들이 이 시리즈를 관람하도록 명령했다. 「우리는 왜 싸우는가」는 가장 영향력 있고 널리 관람된 전시 다큐멘터리로 평가된다(Schatz 1999, 406-408; Jowett 1976, 320-321).

43) 천황제와 국가신도(神道), 군국주의와 결합된 일본의 자본주의, 일본인들의 생활과 사고방식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원래 「우리는 왜 싸우는가」 시리즈의 하나로 기획·제작되어 1944년에 완성되었으나,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등지에서 압수된 일본영화들(극영화 포함)의 필름이 기획 의도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웠고, 천황을 전범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1945년경부터 변화된 미국의 대일정책과 충돌하는 등 여러 이유로 널리 배급·관람되

은 군 최고지휘관 제복 차림으로 백마에 올라 군대를 사열하는 쇼와 천황 히로히토의 영상이다. 「우리는 왜 싸우는가」 시리즈에서 가져온 이런 장면들은 〈오키나와전의 증언〉과 〈군대가 있던 섬〉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1피트운동이 직접 표명하듯이 일차적으로 이 장면들은 오키나와전투가 일본이 벌인 “15년전쟁의 총결산”(沖繩戰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86, 3; 1993, 233)임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다. 이를 위해 1피트운동은 〈전쟁의 서곡〉과 〈너의 적 일본을 알라〉, 이 두 편의 ‘전의고양(戰意高揚)’영화를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구입했던 것이다(我謝幸男 2003, 29).⁴⁴⁾

즉, 이 장면들은 원래 일본이 자신의 선전 목적으로 촬영했거나 일본 뉴스 영화 속의 영상들인 것을 캐프라와 그 동료들이 정반대의 목적으로 전유해 미국의 전시선전영화들 속으로 엮어 넣은 영상들이다. 이제 이 영상들은 다시 1피트운동에 의해 전유되어, 황민화와 군국주의 교육 장면들과 함께, 오키나와 전투의 참혹한 비극이 제국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에 그 원인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는 목적에 봉사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오키나와의 고통과 희생이 일본 군국주의의 지주였던 쇼와 천황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는 목적에도 봉사한다. 오키나와가 천황제와 연루되어온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보면, 이 전유된 영상들은 더욱 통렬해진다.

메이지(明治)정부는 ‘국체’ 확립을 위해 관병식과 황실 패전트 등 각종 행사와 의례를 조직했다. 특히 메이지 20년까지 자주 거행된 대규모 순행(巡行) (‘6대 순행’)은 천황을 민중들에게 가시화하고 사회적 의미의 중심으로 만들면서 전국을 통일된 공간으로 조직했다. 천황의 순행은 점차 ‘어진영(御眞影)’ 하사로 대체되었다. 메이지 천황의 초상화를 찍은 사진인 어진영은 1873년부터 지방관청에 하사되기 시작했고, ‘군인칙유’(1882)를 내린 1880년대에

지는 않았다(Hirano 1992, 108, 291-292).

44) 「우리는 왜 싸우는가」 시리즈와 관련, 특히 이 두 영화는 캐프라가 직접, 또 단독으로 감독했다.

는 군대에, ‘대일본제국헌법’(1889) 제정과 ‘교육칙어’(1890) 반포와 함께 고등 소학교에 하사되기 시작해, 1897년에는 모든 소학교가 천황의 초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런 각종 의례와 순행의 조직과 어진영의 하사는 천황의 스펙터클화인 동시에 전 국토와 국민을 천황의 응시 아래 포섭하고 일체화하는 작업이었다(타키 2007; 후지타니 2003; 이효덕 2002, 294-304).

오키나와는 최근에 일본에 편입되고 천황의 순행이 가닿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그 때문이라든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어진영을 받았다. 오키나와현이 되어 공식 편입(1879)되기도 전인 1873년, 그러니까 류큐왕국이 없어지고 류큐번이 설치(1872)된 바로 다음 해에 일본 외무성은 7개의 히노마루(日の丸)를 보내 류큐번 각지의 청사에 게양할 것을 명령했고, 같은 해 겨울에는 천황과 황후의 사진이 류큐번에 하사되었던 것이다(아니야 2001, 21-22).⁴⁵⁾ 천황의 초상은 어디서나 순행하는 천황을 맞듯이 ‘봉영(奉迎)’되었으며, 엄격한 의례에 따라 전달·보관되고 받아들여졌다(타키 2007, 193-195, 208-216; 후지타니 2003, 120; 이효덕 2002, 302). 오키나와전투 당시에도, “민간인들이 살상되는 와중에도 [쇼와 천황의] 어진영은 안전한 곳을 찾아 북쪽으로 북쪽으로 조금씩 이동되었다. 그 취급자들이 행여 그것을 비에 젖게 하거나, 혼란의 와중에 잃어버리거나, 미군에게 뺏기는 날에는 사형을 각오해야 했다”(필드 1995, 84).

이렇게 일찍 천황의 응시 아래 들어간 오키나와는 천황의 신민이 되기 위해 방언 추방과 풍속개량 등 자기개조를 해야 했고 ‘결전교육’을 받으며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동원되었다. 그러나 전쟁 말기 일본의 지도부가 패전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었고 포츠담선언(7·26)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와중

45) 일본 본토의 각 부현에 어진영이 배부된 것은 1874년이었다(타키 2007, 124-125). 일본은 청나라와 외국에게 류큐가 일본에 속함을 기정사실화해버리고 류큐번에게는 명실공히 일본령이 된 것을 승복시키려는 의도에서 ‘류큐처분’이 완료되기도 전에 일장기와 어진영을 보냈던 것이다(아니야 2001, 22).

에도, 쇼와 천황은 오직 '3종의 신기(神器)'를 보전하고 '국체'를 수호할 것만 걱정하다 원폭투하를 초래했고(고모리 2004, 30-41; 다우어 2009, 373-374), 안 그래도 사석으로 간주되던 오키나와의 주민들 역시 전투가 장기화됨으로써 더 많은 희생을 낳았다("너무 늦은 성단(聖斷)").⁴⁶⁾ 게다가 쇼와 천황은 종전 후 국내외의 도전으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맥아더에게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일본의 안전보장을 요청하면서, 1947년 9월 미군에게 오키나와의 "25년에서 50년, 또는 그 이상에 걸친 장기간의 대여"를 제안하는 이른바 '오키나와 메시지'를 전달해 또 한 번 오키나와를 버렸다(고모리 2004, 226-231).⁴⁷⁾

결국 오키나와가 어디보다 먼저 하사받은 천황(메이지)의 초상은 천황(쇼와)의 배신의 이미지가 되고 만 셈이며,⁴⁸⁾ 1피트운동 영화들 속의 히로히토의 영상은 바로 그런 배신의 이미지이다. 최고사령관 차림의 쇼와 천황의 영상은 1피트운동이 만든 네 편의 영화 모두에서 등장한다. 위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이 영상은 천황이 오키나와를 배신했던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며, 천황이 신민들을 위해 '성단'을 내려 전쟁을 종료시켰다는 허구를 훼손한다. 뿐만

46) 1945년 2월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전 총리는 "이제 일본의 패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화평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진언했으나 천황은 "다시 한 번 전과를 올린 후가 아니면 어렵지 않겠느냐"며 거부했다. 1988년 6월 위령의 날을 맞아 류큐방송(RBC)은 천황이 이때 결단했으면 오키나와전투도 원폭투하도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너무 늦은 성단〉을 제작·방영했다(아라사키 2008, 139-140).

47) 맥아더는 전력의 비보유와 전쟁포기를 명시한 새 헌법을 일본에 시행하기 위해서도 오키나와의 요새화가 필요했는데, 천황의 메시지는 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모리 2004, 229-231). 물론 미군은 자신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라 오키나와전투 때부터 이미 향후 오키나와의 군사적 점령을 추구했다.

48) 오카모토 감독의 〈오키나와결전〉에서도 일본군이 한 늙은 주민을 스파이로 오인하고 사살한 다음 그가 소중히 몸에 지니고 있던 쇼와 천황의 초상사진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다. 전쟁의 비극성과 아이러니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할 이 장면 역시, 어진영을 봉영했던 오키나와가 천황에게 배신당한 역사의 압축적·냉소적 재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니라 이 천황의 영상은 오키나와의 기억과 아픔을 넘어 일본의 전후 공식 역사 자체에 도전한다고도 할 수 있다. 바로 쇼와 천황 히로히토를 제국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최종적이고도 실질적인 책임자로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자 천황의 측근과 보수파 엘리트들은 온갖 궤변을 동원해 쇼와 천황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한 ‘전범’들과 분리하고 평화주의자로 채색했다. 이미 ‘중전조서’에서부터 기도된 천황의 전쟁책임 회피는 한 달도 안 돼 국민 전체가 패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총리 히가시쿠니 나루히코(東久邇稔彦)의 소위 ‘일억 총참회’론에서 그 결정판에 도달했다(고모리 2004, 105-113; 다우어 2009, 369-370).⁴⁹⁾

이와 관련, 시각적 차원에서 주목되는 것이 쇼와 천황의 순행이다. 1946년 새해를 맞아 ‘인간선언’을 한 쇼와 천황은 7주 만인 2월 19일 가와사키와 요코하마부터 시작해 1954년 홋카이도 방문까지 순행을 이어갔다.⁵⁰⁾ 메이지 천황의 순행을 연상시키는 이 “역사의 신기한 반복”(후지타니 2003, 296) 속에 쇼와 천황은 미군 점령하의 오키나와만 제외하고 전국 주요 지방을 모두 돌아보

49) 히가시쿠니는 전후의 첫 총리(1945년 8월 17일~10월 9일)이자 왕족(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東久邇宮稔彦王))으로서는 유일한 총리대신이다. 그가 제창한 ‘일억 총참회’론은 쇼와 천황의 전쟁책임을 회피함은 물론, 일본 국민도 군국주의와 대외침략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시켜준다(신민들은 ‘성전’에서 ‘패한’ 것에 대해 천황에게 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뿐이다). 패전 직후 일본은 이러한 논리를 반복함으로써 전쟁책임을 전범재판에 회부된 몇몇 군국주의자들에게 한정했다. 히로히토 자신도 ‘중전조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전쟁책임을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

50) 히로히토는 1947년 11월까지만도 무려 15번에 걸친 순행을 했고(후지타니 2003, 297), 1954년 8월까지 순행은 165일, 총연장 3만 3천 킬로미터에 걸쳐 이루어졌다(다우어 2009, 425). 순행은 대체로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바, 진주만 공격 6주년에 즈음해선 천황이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그러나 히로시마에 대한 히로히토의 발언은 “여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다우어 2009, 425, 432). 천황은 순행 과정에서 “아, 그래?(あ, そう?)”라는 대답만 연발했으며, 이는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다우어 2009, 432-434; 고모리 2003, 196).

았는데, 천황이 민간인 복장으로 군중을 향해 모자를 들어올리는, 패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은 신이 인간으로, 제왕이 연예인 같은 유명인으로 변화된 천황상을 구축했고, 어색하고 불편한 듯한 천황의 행동거지와 수고는 대중에게 천황과 죽은 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일억 총참모’ 노선을 내면화시켰다(다우어 2009, 425-436; 고모리 2004, 194-197). 이런 식으로 순행은 전쟁과 거리가 먼 천황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다우어(2009, 425)가 요약하듯, “휘장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군복을 입고 백마에 올라탄 모습으로만 알려져 있던 현인신은 어느 날 갑자기 신민들 사이에 나타나, 새로 맞춘 복장(부드러운 펠트 모자에 서구식 외투와 넥타이)을 입은 채 어색하게 걸으며 지금까지 만나 보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다.

1피트운동 영화들 속의 군복 입은 쇼와 천황은 다우어의 이 진술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현인신(現人神)이자 최고 군사지도자 히로히토의 이미지를, 다시 말해 전후 일본이 잊어버리거나 묻어두고 싶어 하는 기억을 되불러낸다. 그렇다면 1피트운동 영화들의 이 영상은 더 나아가 미일동맹체제에 대한 기억의 정치상의 도전이라 할 수도 있다. 천황의 ‘인간선언’을 이끌어내고 ‘상징천황제’를 수립했으며 히로히토를 도쿄 전범재판의 기소 위협에서 보호해준 것은 맥아더와 미국이었고, 일본의 전후체제는 미일동맹체제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황을 대신해 항복문서에 서명한 외무대신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는 미국인들에게 천황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지 강조했는데, 항복문서 조인식 전날 천황과의 알현 자리에서 전쟁의 과오와 제국의 불행한 처지는 메이지 시대 이후 서로 어긋나기 시작한 천황의 마음과 신민의 마음 사이에 생긴 틈을 군국주의자들(군부계급)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다우어 2009, 370; 고모리 2004, 97). 다른 한편, 이가라시(Igarashi 2000, 19-46)에 따르면 미국은 원폭투하를 정당화하고 도래하는 냉전에 대응하는 논리를 멜로드라마적 서사로 풀어냈다. 즉, 미국은 원폭을 사용해 적국의 군국주의 악당들로부터

터 선량한 적 히로히토를 구해냈으며, 이 선량한 적은 ‘미국적 가치’의 대리인이 되었다. 시게미쓰의 보고와 미국이 개발한 이 전후 미일관계의 정초적 서사(foundational narrative) 사이의 이 같은 담론적 유사성은 어제의 두 적국이 냉전시대를 맞아 천황의 전쟁책임 면제에 얼마나 이해가 일치했는가를 보여준다.

맥아더와 미군정 당국은 시각적으로도 전쟁의 흔적이 지워진 천황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일본인들에게 매우 협조적이었고 자신들 또한 적극적이었다. 천황의 순행에는 처음부터 미군 병사들이 호위병으로 수행했거니와(다우어 2009, 432-434), 서구식 복장을 한 민간인 모습의 쇼와 천황 이미지가 공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9월 27일 맥아더와 히로히토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그 유명한 사진에서부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맥아더 옆에 선 왜소하고 초라한 사진 속 천황의 모습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천황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Igarashi 2000, 33).⁵¹⁾ 또한 짐령군 당국은 예컨대 유명한 종군사진사 아마하타 요스케(山端庸介)를 항공으로 불러 천황이 황후와 함께 정원에서 잡지를 읽는 모습을 찍게 하는 등 군사지도자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가정적인 가장으로 천황의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했다(모리스-스즈키 2006, 133-139).

가메이 후미오(亀井文夫)가 만든 영화 〈일본의 비극(日本の悲劇)〉을 둘러싸고 벌어진 1946년 여름의 에피소드는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명쾌하게 알려준다. 이 다큐멘터리는 캐프라의 「우리는 왜 싸우는가」 스타일로 전시에 촬영된 영상들을 몽타주하여 봉건주의 잔재와 군국주의, 천황제를 비판하는데,⁵²⁾ 핵심은 전쟁책임 문제이다. 영화는 일본을 침략전쟁으로

51) 또, 큰 체격의 맥아더가 천황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맥아더가 천황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편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다우어 2009, 378).

52) 가메이는 1920년대 후반 소련에서 영화공부를 했다. 그가 전시에 만든 기록영화들도 반전

물고 기놓고도 전후의 미군 점령 하에서 평화주의자인 양 돌변한 지배계층의 행태를 가차없이 분석한다. 대단히 인상적인 한 몽타주 시퀀스에서는 제복 차림의 최고 군사지휘관 쇼와 천황이 수수한 벡타이와 오버코트, 부드러운 펠트 중절모 차림의 약간 구부정한 민간인 모습으로 디졸브되어 바뀐다. 가메이의 이 짧지만 기억할 만한 시퀀스는 천황의 전쟁책임 회피를 간결하고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응축해 보여준다. 니치에이의 이 영화는 CIE(민간정보교육국) 장교들의 후원 아래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의 요청을 받은 정보 당국(G-2) 책임자 찰스 윌로비(Charles Willoughby) 장군이 개입해 1946년 8월 중순 상영이 금지되었고, 점령군은 곧 필름 프린트와 원판을 압수했다.⁵³⁾ 이렇게 천황의 전쟁책임을 묻는 영상이미지가 억압된 이 시점을 전후해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대한 진지한 논쟁도 사라지게 된다(Hirano 1992, 122-145; Normes 2003, 184-190; 다우어 2009, 555-558).

전후체제는 이 같이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망각을 요구하는 또 한 번의 ‘일본의 비극’을 기초로 성립했는데, 1피트운동은 망각을 강요받은 이 기억을 되살려낸다. 1피트운동 영화들 속의 쇼와 천황 영상은, 말하자면 가메이가 만든 그 디졸브 시퀀스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의 뉘앙스를 품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좌파이고 〈일본의 비극〉은 일본공산당의 맑스주의 노선(강좌파)에 입각하고 있지만, 그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한다(Normes 2003, 148-190; 다우어 2009, 555-556).

53) 니치에이(日映)는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촬영했던 바로 그 영화사다. 미국이 자신의 결정과 행위의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의 효과〉를 금지하고 압수한 그해에 〈일본의 비극〉 역시 금지되고 압수된 것이다. 후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다우어(2009)가 잘 보여주듯 냉전의 도래 속에 이상주의(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일본의 창조)가 힘을 잃고 기존 체제의 방어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된 GHQ의 ‘역코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 케라마열도의 조선인 군부들

1피트운동의 영화들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영상과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미래에의 증언> 속 포로수용소 장면은 75세의 방위대원과 15세의 학도대원까지 동원했던 오키나와수비군의 열악한 실상에 이어 다수의 조선인 군부들을 보여준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시라우메간호대 위령비와 히메유리의 탑 등을 보여주며 오키나와전투의 비극적 희생자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에 조선인 군부와 군위안부(일본군 성노예)에 대해 언급한다. <도큐먼트 오키나와전>의 전반부에는 케라마열도에 상륙한 미군이 생포한 조선인 군부들의 미디어 버스트 샷(이후에 만든 영화들에도 삽입된다)과 이들이 상륙정에 승선하는 샷이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투항을 권고하는—일본군의 눈에 띄면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매우 위험한—임무가 주어진 조선인 군부가 백기를 들고 숲으로 향하는 시퀀스까지 등장한다. 후반부에는 야카(屋嘉)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을 본토 출신, 오키나와 출신, 조선인 군부 세 범주로 구분했다는 영상과 설명 다음에 수용소에 있는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들의 스틸 사진을 보여준다.

오키나와전투에 동원된 조선인은, <오키나와전의 증언>에 출연해 전쟁의 참상을 증언한 6명의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케라마열도에서 살아남은 조선인 군부일 만큼 1피트운동이 중요하게 여기는 피해자 집단이다. 경상북도 영양까지 찾아가 인터뷰한 생존자 강인창은 아카섬에서 조선인 군부 12명이 배고픔을 못 이겨 나락을 훔쳐 먹었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은 일본군에게 총살당한 사건을 증언한다. 카메라에는 영양에 건립된 ‘태평양전쟁 오키나와지구 전사자 여한비(太平洋戰中繼地區戰死者餘恨碑)’도 잡힌다.⁵⁴⁾ 뒷부분에서는 끝

54) 오키나와로 징발된 경북 출신의 3,000여명을 위로하기 위해 오키나와참전생존자협회 경상북도지회장 강인창(인터뷰 당사자)의 주관으로 경상북도와 영양군이 지원해 건립되었다(비석에 새겨진 건립기). 2,800여명의 전사자와 행방불명자의 이름(한국 이름이 미확인된 사람

려가는 조선 처녀를 묘사한 그림을 보여주며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⁵⁵⁾ 120개 이상의 위안소가 오키나와제도 전역에 설치되어 일본인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의 군위안부가 일했음을 지도를 통해 보여주며, 위안소가 군의 명령에 따라 설치되고 요금과 시간이 군에 의해 정해졌음을 일본군 문서(『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폭로한다. 카메라는 이어서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과 유품을 보여주며 도카시킴 섬에 군위안부로 끌려와 오키나와에서 생을 마친 배봉기 할머니의 삶을 소개한다.⁵⁶⁾ 케라마의 비극에 바짝 렌즈를 갖다 댄 〈군대가 있던 섬〉에서도 아카섬의 생존자 강인창의 증언과 영양의 ‘여한비’, 도카시킴섬의 군위안부 배봉기 이야기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고 배봉기 할머니의 육성 노래가 생존자들의 증언에 합류하며, 도카시킴에서 살아남은 군부 권수억과 안수복의 증언도 가세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일본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동원에 대한 정부와 군의 조직적 관여 또한 부인하며,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의 경제협력협정으로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1피트운동이 만든 영화들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해석을 일본

은 일본 이름이 새겨져 있다.

55) 이 그림은 고 김순덕 할머니(2004년 6월 사망)가 그린 〈끌려감〉이다. 김순덕 할머니는 1937년(당시 17세)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상하이에서 군위안부가 되었다가 난징을 거쳐 1940년 일본군 장교의 도움으로 귀국했다. 할머니가 그린 〈못다 핀 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징이 되었다.

56) 배봉기 할머니는 29세 되던 1943년 취업사기에 걸려 1944년부터 도카시킴섬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 종전 이후 나하에서 살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당시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 당할 처지에 놓여 스스로 일본군위안부 피해경험자였음을 밝혔다. 할머니가 1975년 1월 외국인 등록을 마침으로써 세계 최초로 군위안부 피해자가 드러났다. 조총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끝내 고향(충남 예산군 신례원)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인기피증 속에 살다 1991년 10월 사망했다(한국정신대연구소, 2006).

내부에서 반박한다. 조선인 군부들의 영상과 증언은 일본이 강제로 끌고 온 수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존재와 부당한 피해를 상기시키고, 57) 1피트운동이 조선인 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기 때문이다.

1피트운동의 영화들에서 조선인 군부들의 영상과 증언은 이와 같이 침략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전쟁책임을 묻는 것임과 동시에 일본의 애도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스쿠니신사에는 2001년 10월 기준으로 군인과 군속으로 동원된 조선 출신 합사자 21,181명과 대만 출신 합사자 28,863명이 ‘호국의 신’으로 모셔져 있다(다카하시 2005, 88). 이 같은 상황에서 1피트운동의 영화들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강요된 집단자결과 군대의 주민학살의 기억을 되씹음으로써 전쟁터가 되었던 오키나와를 일본의 애도공동체 속으로 전유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군부의 영상들을 찾아내 보여줌으로써 식민지의 피해자들을 식민지 지배자들의 애도공동체 속으로 통합하는 폭거에 항의하는 것이다.⁵⁸⁾

이로써 1피트운동의 영화들은 동아시아 민중들이 전쟁과 군국주의로 인한 아픔을 나누고 기억과 체험을 공유할 가능성을 설정한다. 지상전이나 기지문제 같은 역사적 체험과 현재적 고통은 오키나와가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것임과 마찬가지로(아라사키 2008, 5), 중국에는 전쟁을 불러온 식민지 지배의 피해 역시 오키나와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기억과 고통의 공유는 ‘비극의 섬’을 넘어 ‘평화의 섬’이 되기를 원하는 오키나와 평화운동이 항상 추구해 온 것이다. 오키나와전투 종결 50주년을 맞아

57) 일본정부는 1944년에만도 조선인 노무자 29만 명을 동원했다(外村 大 2012, 172).

58) 야스쿠니신사는 식민지 출신자들의 합사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해왔다. 2001년 6월에는 한국의 유족 55명이 도쿄 지방재판소에 합사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다카하시 2005, 89-91). 일본인 중에서도 각지에 산재한 ‘호국신사’에 유족의 의향과 상관 없이 망자의 위패를 모시는 데 항의하는 유족들이 있으나 국가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필드 1995, 125-193).

1995년 6월에 제막된 ‘평화의 초석(平和の礎)’에는 미군도 포함해 오키나와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새겨져 있으며, 2013년 현재 447명의 한반도 출신자들(남한 365명, 북한 82명)도 여기 각명되어 있다.⁵⁹⁾ ‘빨간 기와집’이라 불린 위안소가 있었던 도카시키텍에는 1997년 조선인 군위안부를 기리는 ‘아리랑 위령의 탑(アリラン慰靈のモニュメント)’이 만들어졌다. 오키나와전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전하는 1피트운동 영화들 속에 포함된 조선인 군부와 군위안부의 영상과 증언은 이러한 기억과 아픔의 공유에 대한 이미지일 것이다.

기억과 아픔의 공유는 억압과 폭력에 대항한 연대의 형성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인 군부가 백기를 들고 주민들에게 투항을 권고하러 가는 <도큐먼트 오키나와전>의 장면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여기서 ‘집단지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군이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할 당시, 상륙지점 요미탄에 소재한 치비치리 가마(チビチリガマ)에서는 숨어있던 139명의 주민들 중 15세 이하 47명을 포함한 8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시무쿠가마(シムクガマ)에서는 1,000여명의 주민들이 모두 미군에 투항해 살아남았다. 치비치리가마에서는 중국전선에서의 경험으로 일본군의 만행을 알고 있던 재향군인과 종군간호사가 미군도 자신들을 살육하고 강간할 것이라며 ‘귀축영미’의 공포를 부채질해 주민들을 집단자결로 몰고 간 반면, 시무쿠가마에서는 미국 이민체험자 2명이 투항해도 미군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 주민들이 자결하지 않았던 것이다(강성현 2008; 필드 1995, 71-74). 이렇듯 황민화와 결전교육이 죽음 이외의 대안을 생각지도 못하게 한 상황과 대안을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의 차이는 주민들의 생과사를 극명하게 갈랐다.

케라마열도의 그 조선인 군부 포로는 미군이 시켰기 때문에 투항 권고 입

59) 총 241,22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오키나와현 홈페이지(<http://www.pref.okinawa.jp/>) 참조.

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크고, 결과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투항 권고는 전달되었다면 아마도 주민들에게 죽음 이외의 대안에 대해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대안의 가능성은 기억과 아픔의 공유에 기반한 타자와의 연대에서 마련되고 있다. 1피트운동의 오키나와전투에 대한 기억과 증언은 이렇게 해서도 미래를 위한 증언이 되고 있는 것이다.

IV. 1피트의 장대함

1피트운동은 2013년 3월 15일 해산할 때까지 30년간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약 8,900만 엔을 모금했고 총 11만 피트의 필름을 구입했다.⁶⁰⁾ 1피트운동은 미국 국립공문서관으로부터 구입한 이 필름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4편의 '지주영화'들을 제작해 보급하고, 상영과 강연 및 증언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오키나와전투의 참상과 실상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또, 1피트운동은 국제연합 군축특별총회(SSDⅢ) 요청행동(1988)이나 '위령의 날' 휴일 폐지 반대운동(1989~1990)에 참여하고, '호·가마 조사' 활동(1992~)을 주도했으며, 평화기념관 전시 변경 기도나 교과서검증결과에 대한 항의 활동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오키나와 평화운동의 대표적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93, 1998, 2003, 2008; 아라사키 2008, 155-156).

오키나와의 주체성을 지키고 세계를 향해 평화를 촉구하는 활동에 있어 1피트운동의 가장 큰 공헌은 역시 미국 공문서관에서 발굴한 필름과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를 통해 오키나와전투의 참상을 기록한 영상을 널리 보급한 일일

60) 1피트운동 해산선언문(<http://www.geocities.jp/okinawa1feet/>).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써 오키나와전투를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 고유의 기억은 일본 국가의 일방주의적인 내셔널리즘적 포섭에 저항할 물질 토대의 하나를 확보한다. '기억을 둘러싼 전쟁'을 위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것이다.

더욱이 1피트운동이 제작한 영화들은 오키나와 역사상 주민들의 가장 큰 희생을 낳은 오키나와전투에서 격전을 벌였던 상대방 군대가 촬영한 필름들을 자르고 이어 붙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전유함으로써 오키나와 자신의 기억의 정치를 위한 영상자료를 구축해냈다는 점에서 영화적으로도 흥미롭다. 이러한 영화적 작업은 프랭크 캐프라의 「우리는 왜 싸우는가」 시리즈나 사진에 있어서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의 포토몽타주 작업과도 원리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가메이 후미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집영화'와 '문화영화' 장르를 자신의 일부로 품고 있는 일본 기록영화 전통에 맥이 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Nornes 2003).

1피트운동이 전부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커다란 기여를 해 널리 시각화된 오키나와의 기억은 큰 힘을 가지고 일본국의 공식 역사에 저항하고 오키나와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는다. 이런 점에서 오키나와의 1피트운동은 자신의 선배인 히로시마의 10피트운동과도 다른 점이 있다고 해야 한다. 히로시마와 원폭의 기억은 그 압도적인 숭고(sublime)의 감각과 너무나도 보편적인 인간주의적 호소력으로 인해 곧잘 역사적 맥락이 지워진 평화주의 메시지가 되며 일본의 전쟁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이용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와 전쟁의 기억 역시 오키나와를 피해자로만 일면화해 오키나와인들의 전쟁 참여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오키나와와 여타 동아시아 식민지들 간의, 오키나와 내 여러 지역들 간의 차별과 갈등을 가려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또 원폭투하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전투의 비극 역시 일본국의 거대한 애도공동체로 포섭되기 쉽다. 하지만 오키나와전투의 기억에서 일본이 수행한 침략전쟁이란 역사적 맥락을 도외시키고, 일본국이 자국의 일원에게 가했던 배신과 피해라는 외상적 경험을 지우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일본에 반환된 지 꽤 시일이 흐른 1987년 국제(국민체육대회) 개최 당시의 시점에도 오키나와를 “천황을 방문시키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지역”(아라사키 2008, 137)으로 만들었고, 반환 이전에는 더 더욱이 오키나와 사람들로 하여금 본토에서 온 여행자들을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맞아주면서도 “아무리 자제한다고 해도 금방 표정이 얼어붙고 온화한 얼굴빛 아래에 불신과 거부감이 끓어오르는 것을 감추지 못”하게(오에 2012a, 16) 한 것은 이런 오키나와의 외상적인 경험이다. 이 경험에 대한 기억을, 오키나와인 자신들이, 그 외상적 경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나라가 생산한 영상 자료를 이용해 시각화해서, 자신에게 그 외상적 경험을 강제한 나라의 공식 역사에 문제제기하고 도전한다는 점에서 1피트운동의 기억의 정치는 주목을 끈다. 더구나 1피트운동은 이런 기억의 정치를 시민들이 1피트씩 필름을 구입하는 민주적 참여에 기초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1피트가 얼마나 장대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도 한다.

참고문헌

- 강성현. 2008. “죽음으로의 동원과 이에 대한 저항 가능성.” 정근식·주은우·김백영 편. 『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 서울: 논형.
-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저, 송태욱 역. 2004.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울: 뿌리와이파리.
- 다우어, 존(Dower, John W.) 저, 최은석 역. 2009. 『패배를 꺾이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 서울: 민음사.
- 다카하시 테쓰야(高橋哲哉) 저, 현대송 역. 2005. 『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 서울: 역사비평사.
-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저, 임성모 역. 2002. 『전장의 기억』. 서울: 이산.
- 모리스-스즈키, 테사(Morris-Suzuki, Tessa) 저, 김경원 역. 2006. 『우리 안의 과거: 미디어·메모리·히스토리』. 서울: 휴머니스트.
- 아니야 마사야키(安仁屋政昭). 2001. “천황제와 동아시아.” 동아시아평화인권한국위원회 편.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 전쟁, 냉전과 마이너리티』. 서울: 삼인.
- 아라사키 모리테루(新崎盛暉) 저, 김정자 역. 1998. 『또 하나의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 서울: 역사비평사.
- 아라사키 모리테루(新崎盛暉) 저, 정영신·미야우치 아키오(宮内秋緒) 역. 2008. 『오키나와 현대사』. 서울: 논형.
- 야카비 오사무(屋嘉比 叟). 2008. “오키나와전에 있어서 주민학살의 논리.” 정근식·주은우·김백영 편. 『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 서울: 논형.
-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저, 이애숙 역. 2012a. 『히로시마 노트』. 서울: 삼천리.
-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저, 이애숙 역. 2012b. 『오키나와 노트』. 서울: 삼천리.
- 이효덕(李孝德) 저, 박성관 역. 2002. 『표상 공간의 근대』. 서울: 소명출판.
- 정영신. 2008. “오키나와의 기지화·군사화에 관한 연구: 기지의 건설·확장과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정근식·전경수·이지원 편. 『기지의 섬, 오키나와: 현실과 운동』. 서울: 논형.
- 존슨, 찰머스(Johnson, Chalmers) 저, 이원태·김상우 역. 2003. 『블로우백』. 서울: 삼인.
- 주은우. 2007. “섬의 시선 - 영화와 오키나와의 자기 정체성.” 『사회와 역사』 제73집, pp. 281-333.
- 주은우. 2008. “섬의 이미지와 국민국가의 응시 - 전후 일본영화 속의 오키나와 재현.” 『사회와 역사』 제78집, pp. 277-336.
- 진필수. 2011. “하토야마(鳩山)내각에 있어 후텐마(普天間)기지 반환문제와 미일안보체

- 제의 재인식: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점.” 『사회와 역사』 제92집, pp. 169-226.
- 타키 코지(多木浩二) 저, 박삼현 역. 2007. 『천황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
- 필드, 노마(Field, Norma) 저, 박이엽 역. 1995.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서울: 창작
과비평사.
- 한국정신대연구소. 2006. 『오키나와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증언 / 배봉기의
역사이야기』. 여성가족부 용역과제 결과보고서.
- 후지타니, 다카시(Fujitani, Takashi) 저, 한석정 역. 2003.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
과 국가의례』. 서울: 이산.
- 淺川志保・山本アン(아사카와 시호・야마모토 안) 編. 2003. 『山形国際ドキュメン
タリー映画祭2003 カタログ/Yamagat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2003 Official Catalog』. 山形市: 山形国際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祭
実行委員会.
- 上村忠男(우에무라 타다오) 編(2002), 『沖繩の記憶/日本の歴史』, 東京都: 未来社.
- 沖繩言語研究センター. 1998. 『追悼・仲宗根政善』. 沖繩県西原町: 沖繩言語研究
センター.
- 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86. 『沖繩戦・未来への証言』. 那覇市:
1フィート運動事務局.
- 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93. 『1フィート運動 十周年記念誌』.
那覇市: 子どもたちにフィルムを通して沖繩戦を伝える会(通称: 沖繩戦
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 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1998. 『1フィート運動のあゆみ - 集録
1994~1998年』. 那覇市: 子どもたちにフィルムを通して沖繩戦を伝える会
(通称: 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 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2003. 『20周年記念 1フィート運動のあ
ゆみ - 集録1999~2003年の記録』. 那覇市: 子どもたちにフィルムを通して
沖繩戦を伝える会(通称: 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 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2008. 『25周年記念 1フィート運動のあ
ゆみ - 集録2004~2008年の記録』. 那覇市: 子どもたちにフィルムを通して
沖繩戦を伝える会(通称: 沖繩戦記録フィルム1フィート運動の会).
- 大城將保(오시로 마사야스). 2007. 『沖繩戦の真実と歪曲』. 東京都: 高文研.
- 大田昌秀(오타 마사히데). 1980. 『戦争と子ども - 父から, 戦争を知らない子たちへ
』. 沖繩県南風原町: 那覇出版社.
- 大田昌秀(오타 마사히데). 1983. 『写真記録 これが沖繩戦だ』. 改訂版. 那覇市: 琉球
新報社.

- 我謝幸男(가자 유키오). 2003. “未來への証言のために.” 仲里 効(나카자토 이사오) 外編. 『琉球電影烈伝/境界のワンダーランド 特集カタログ Okina wa - Nexus of Borders: Ryukyu Reflections Official Catalog』. 山形市: 山形国際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祭実行委員会.
- 我部 聖(가베 사토시). 2005. “仲里効 - 植地的な身体を解き放つ表現者.”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전후 - 오키나와전, 제주4·3사건, 한국전쟁』. 국제공동심포지움 자료집.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부설 동아시아센터·東京外国語大学 前後 동아시아 연구팀.
- 外村 大(トノムラ マサ루). 2012. 『朝鮮人強制連行』. 東京都: 岩波書店.
- 仲里 効(나카자토 이사오). 2005. “琉球電影烈伝/記憶と夢のスクランブル.”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전후 - 오키나와전, 제주4·3사건, 한국전쟁』. 국제공동심포지움 자료집.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부설 동아시아센터·東京外国語大学 前後 동아시아 연구팀.
- 仲里 効 外. 2004. “座談会: 〈翻譯〉と〈分有〉の鼓動.” 『EDGE』 第13号, pp. 4-13.
- 仲里 効 外 編. 2003. 『琉球電影烈伝/境界のワンダーランド 特集カタログ Okina wa - Nexus of Borders: Ryukyu Reflections Official Catalog』. 山形市: 山形国際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祭実行委員会.
- 仲宗根政善(나카소네 세이젠). 1982. 『ひめゆりの塔をめぐる人々の手記』. 東京都: 角川学藝出版.
- 仲程昌徳(나카호도 마사노리). 2003. “「ひめゆり」の読まれ方 映画「ひめゆりの塔」四本をめぐる.” 『日本東洋文化論集』 第9号, pp. 1-14. 琉球大学 法文学部.
- 比嘉富子(히가 토미코). 2000. 『白旗の少女』. 東京都: 講談社.
-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2005. 『2005年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企画展 沖縄陸軍病院看護婦たちの沖縄戦』. 糸満市: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資料委員会. 2004.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那覇市: 財団法人沖縄県女師・一高女ひめゆり同窓会/糸満市: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 比屋根薫(히야네 카오루). 2004. “沖縄戦の報復戦争を任掛ける歌.” 『EDGE』 第13号, pp. 84-85.
- 真鍋和子(마나베 카즈코). 2004. 『いのちの重さ伝えたい: 沖縄戦1フィート運動と中村文子のあゆみ』. 東京都: 講談社.
- Allen, Matthew. 2003. “Wolves at the Back Door: Remembering the Kumejima Massacres.” in Laura Hein and Mark Selden eds. *Islands of Discontent: Okinawan Responses to Japan and American Power*. Lanham: Rowman &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Dower, W. John, 1986.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Pantheon Books.
- Hein, Laura and Mark Selden, 2003. "Culture, Power,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Okinawa." in Laura Hein and Mark Selden, eds. *Islands of Discontent: Okinawan Responses to Japan and American Power*.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Hirano, Kyoko. 1992. *Mr. Smith Goes to Tokyo: Japanese Cinema under the American Occupation, 1945~1952*. Washington and Lond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Hook, Glenn D. and Richard Siddle, 2003. "Introduction: Japan? Structure and Subjectivity in Okinawa." in Glenn D. Hook and Richard Siddle, eds. *Japan and Okinawa: Structure and Subjectiv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 Igarashi, Yoshikuni. 2000. *Bodies of Memory: Narratives of War in Postwar Japanese Culture, 1945~1970*.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wett, Garth. 1976. *Film, the Democratic Art: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Film*. Boston and London: Focal Press.
- McCormack, Gavan, 2003. "Okinawa and the Structure of Dependence." in Glenn D. Hook and Richard Siddle, eds. *Japan and Okinawa: Structure and Subjectiv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 Nelson, Christopher. 2008. *Dancing with the Dead: Memory, Performance, and Everyday Life in Postwar Okinaw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Nornes, Abé Mark. 2003. *Japanese Documentary Film: The Meiji Era through Hiroshim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ozaki, Yoshiko and Inokuchi, Hiromitsu, 2000. "Japanese Education, Nationalism, and Ienaga Saburō's Textbook Lawsuits." in Laura Hein and Mark Selden, eds. *Censoring History: Citizenship and Memory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East Gate Book(M. E. Sharpe).
- Schatz, Thomas. 1999. *Boom and Bust: American Cinema in the 1940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onetani, Julia. 2003. "Future 'Assets,' but at What Price? The Okinawa Initiative Debate." in Laura Hein and Mark Selden, eds. *Islands of Discontent:*

Okinawan Responses to Japan and American Power,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투고일: 2013. 09. 17, 심사일: 2013. 10. 07, 게재확정일: 2013. 11. 05)

The One-Foot Film Movement's Politics of Memory over the Battle of Okinawa

Joo, Eun-woo

The One-Foot Film Movement was a grassroots peace movement for teaching children the realities of the battle of Okinawa and sending the world the sincere wish for peace by collecting and recomposing the visual records of the battle with Okinawan peoples' own hands and from their own point of view, based on the purchase of the films shot by the U.S. military during the battle with the fund raising of money for one-foot film footage each person. The movement started on December 8, 1983 and had done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film purchase, making and releasing its own documentary films, war survivors' lectures, and peace movements until its dissolution on March 15, 2013. It had made four films on the basis of the film footage bought from the U.S. National Archives: *The Battle of Okinawa · Testimony for the Future*(1986), *A Document of the Battle of Okinawa, Told One Foot at a Time*(1995), *Testimonies of the Battle of Okinawa*(2005), *The Islands Where There Were Troops: Testimonies from Kerama*(2009). This article reviews the trajectories of the movement and examines the politics of memory in its film texts focusing on the three themes: memory of the war, the portraits of Showa Emperor, and the images of Korean military laborers. The One-Foot Film Movement waged its 'war over the memory' with the visualization of the Okinawan memory resisting the subsumption into the official history of the nation Japan.

Key words : the Battle of Okinawa, the One-Foot Film Movement, documentary film, memory, peace movement